PP 282-287

북 디자인 연구 모임, 1980년대 한국 출판 디자인 현장 기록과 증언

A Study on 1980s Korean Publishing Design

전가경(시각문화 연구자, 사월의눈 대표)
정재완(북 디자이너, 영남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Kay Jun (Aprilsnow)
Jeong Jaewan (Yeungnam University)

* 북 디자인 연구모임은 202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문화산업 연구 소모임'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회원으로는 정재완(북 디자이너, 영남대학교 교수), 전가경(시각문화 연구자, 사월의눈 대표), 김수정(북 디자이너, 정제소 대표), 유소율(영남대 박사과정), 구민호(영남대 석사과정), 이민규(홍익대 재학생)가 있다.

들어가며: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사 연구의 초석 다지기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은 지난 몇 년간 동시대 세계 그래픽 디자인 씬이라는 자장 안에서 빼어난 완성도와 다원화된 활동을 선보임으로써 전례 없는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해외 웹진 It'snicethat에 한국의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연달아 소개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획과 전시, 강의 등 다양한 활동 영역을 가로지르며 그래픽 디자이너의 활동은 문제해결사로서의 전통적 역할상을 뛰어 넘고 있으며, 다변화된 기술 환경 속에서 발빠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양식을 짧은 주기로 선보이고 있다. 기술적 패기와 현란함,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영역의 확장성 등으로 점철될 수 있는 지금 이곳의 그래픽 디자인은 '한국'이라는 테두리가 좁게 느껴질 만큼 당차고, 재빠르고, 혼성적인 양상을 띈다. 이러한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은 언제나 '진행 중'인 현재에 주목하고, 그 양상 또한 소식이라는 단발성 뉴스에서 그칠 뿐, 지금의 흐름을 비평적으로 조망하는 리뷰는 부재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그래픽 디자인 씬이 경험한 변화에 비한다면 기록과 리뷰의 부재는 초라한 성적이자, 곧 아이러니다. 그리고 이 글은 그 원인으로 한국 그래픽디자인사의 부재를 지목한다. 몇몇 개인과 프로젝트에 의해 한국 디자인사 관련 문헌들이 출간된 바 있으나, 대부분은 산업디자인의 관점이 우세하며, 그 결과 그래픽 디자인을 촘촘하게 보는 망으로선 기능하지 못했다. 설령 관련 문헌이 있었다고 한들 대부분은 특출난 디자이너의 성과를 기리는 서사에 머물렀다. 더더군다나 지난 10년간 인접분야인 미술이나 건축 그리고 사진에서 한국의 80-90년대를 고찰하는 연구와 전시 등이 마련되었던 사실과 비교할 때 한국의 그래픽 디자인은 탁월하게 민첩했지만 동시에 담론적으로는 허약했던게 현실이다. 과거와 역사는 동의어는 아니지만, 과거의 기록은 역사화(historicization)의 한 과정으로서 현재를 둘러싼 보기와 쓰기의 행위를 풍성하게 해줄 재료다. 가까운 과거라도 기록함으로써 현재를 읽어 나가는 일차 문헌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 첫 과정으로서 확보해야 하는 것은 디자인 행위의 실무를 담당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언어화하는 것이다. 서두가 다소 길었으나, 북 디자인 연구 모임의 시작은 이런 문제 의식에서였다. 한국 그래픽 디자인을 기록해 나가는 하나의 여정으로서 '북 디자인'을 택했고, 생존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함으로써 오늘을 보다 입체적으로 관망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다.

북 디자인 연구모임

북 디자인 연구 모임은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한국 출판의 역사를 조망하고자 2020년에 결성되었다. 한국 디자인사 연구 담론의 확장을 모색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의 영역을 아우르는 출판 디자인의 한때를 기록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북 디자인 연구모임은 한국 출판 디자인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고자 했으며, 이 연구가 곧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현대적 의미의 북 디자인이라는 행위가 출판 현장에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직업인으로서의 북 디자이너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북 디자인은 디자인의 한 분과이자 출판의 한 과정이다. 디자인과 출판의 생태계가 다르듯이 북 디자인을 어떤 분야에서 다루는가에 따라 그 위상과 의미는 달라진다. 1970년대 중반, 한국 1세대 북 디자이너 정병규의 사례는 초기 한국의 북 디자인이

디자인보다는 출판에 근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 디자이너 정병규의 70-80년대 북 디자인을 연구한 정재완(2018)은 정병규를 '심미적 인문주의자'로 규정하며 문학으로부터 파생된 한국 북 디자인의 요구에 대해 서술했다. 정병규 스스로 '나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책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책의 현장에서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하게 된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디자인이었다는 것은 한참 후에 알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정병규와 그를 둘러싼 몇몇 디자이너 및 출판인들의 활동으로 '북 디자인'이라는 개념의 정립과 정착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한국 현대 북 디자인의 초석은 이 시기에 다져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1980년대를 주목한 이유

1980년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우리는 그때를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격동의 시기 정도라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억압과 저항이 시대의 추동체가 되었던 이 역설의 시공간 속에서 북 디자인은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을까. 민주화 운동과 북 디자인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혹은 그와는 무관하게 독립된 영역을 확보하고 전개되었을까. 북 디자인을 자극한 기술의 발전은 무엇이었으며, 실제 어떤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물질을 형성했을까.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며 연사들을 선정하고 모셨고, 동시에 기록하고, 관련 문헌들을 찾아 나갔다. 북 디자인 연구모임은 2000년 연구 주제를 '1980년대 한국 출판 디자인 현장 기록과 증언'으로 잡았다. 이 시기는 한국 시각문화의 과도기이자 응축된 실험정신이 폭발한 때이다. 1970년대 중후반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수용된 서양의 합리주의 디자인 노선과 한글세대 디자이너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 한글 기계화, 사진식자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경제 호황 등은 한국 현대 사회가 시각적으로 재편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글 전용, 가로짜기의 흐름, 디지털 서체 회사의 설립, 한글을 활용한 그래픽 디자인 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단행본, 잡지, 신문 등 출판 디자인의 영역에서 명료한 형태로 포착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는 한국 잡지디자인의 본격적인 도약이 이뤄진 때이자, 한글 기계화에 대한 현대적 욕망이 정점에 이르렀으며, 여성지와 무크지 등이 활발하게 제작되었고, 디자인 교육을 받은 전문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시작된 시기다. 가로짜기가 정착한 때가 1980년대이기도 하다. 당시의 몇 가지 현상만 놓고 보았을 때 1980년대는 오늘의 한국 그래픽 디자인, 좁게는 출판 디자인과 북 디자인의 거점이었다. 이러한 문화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 하물며 북 디자인에 대한 연구나 기록, 더 나아가 비평은 부재한다. 그 흔적을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곳은 월간 <디자인>과 같은 매체나 신문 기사 혹은 디자이너 개개인의 작업 포트폴리오다. 그러나 이마저도 분산되어 있을 뿐, 어떤 한 개념이나 줄기로 정리된 바가 없다. 북 디자인 연구모임은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사 구축에 있어 우선시 되어야 하는 1980년대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실천하는 행위로서 1980년대에 활동했던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시대와 작업을 기록하고자 했다. 일종의 '원재료(raw material)'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큰 목표였다.

구술 주제사 연구

북 디자인 연구모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들을 연사로 모시고 기록을 시작했다. 총 6회에 걸쳐

일곱 명의 발제자를 선정하고 직접 대면으로 1980년대 출판 디자인 현장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한 회차당 세 시간에서 길게는 다섯 시간까지 연장되는 구술을 녹음한 후, 녹취록으로 정리했다. Google Workspace 문서관리로 회원들 간의 소통을 도모했으며 필요한 경우 실시간 화상 회의(Google meet)를 활용했다. 연구모임은 매월 개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

회차	일시	발제자	주제어
1	2020.4.25	정병규 (북 디자이너)	1980년대: 죽음, 해체, 축제
2	2020.7.10	박영신, 박혜준	웅진출판, 어린이마을, 어머니책
3	2020.7.17	조의환	사진식자, CTS, 디지털폰트 변화에 대하여
4	2020.10.24	남궁균	활판인쇄, 옵셋인쇄, 디지털인쇄 변화
5	2020.12.5	구본창	사진과 그래픽디자인
6	2020.12.15 (비대면 진행)	벌어짐	1980-90년대 잡지 디자인

정병규

북 디자인 연구 모임은 1980년대 출판 디자인 현장 연구의 큰 흐름을 잡기 위해 1980년대에 북 디자이너로 활발히 활동했던 정병규 디자이너를 연사로 모셨다. 북 디자인은 책 표지와 내지를 꾸미고 장정하는 행위라는 표면적 정의를 넘어서 한글 문화, 나아가 우리의 시각문화 전반에 걸친 개념이라는 점을 상기해본다. 창씨 개명을 강요받지 않은 순 한글세대, 4·19와 민주화를 현장에서 몸소 겪으며 매체(신문, 잡지, 단행본)의 한글 전용으로 인해 새로운 언중으로 탄생한 세대에게 출판은 각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촉각으로 느끼는 활자문화를 마감하고 비촉각 디지털 문화를 맞이한 세대에게 기술의 발전과 변화는 우리의 시각문화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느끼게 만들었다. 정병규는 이날 발제에서 1980년대 출판과 디자인을 바라보는 키워드로 '죽음' '해체' '축제'를 제시했다.

박영신, 박혜준

한국 그래픽디자인계에서 여성 아트디렉터, 여성 디자이너의 존재감은 미약하다. 이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미친 영향이자,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1980년대 신문 기사에서 북 디자이너라는 유망 직업은 주로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직군으로 다뤄지기도 했는데, 출판사 근무 환경과 노동 강도가 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성 북 디자이너에 대한 기록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든 걸까. 북 디자인 연구모임은 1980년대 잡지 ≪샘이깊은물≫ 디자이너로 알려진 박영신 디자이너와 1980-90년대 걸쳐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디자이너 그리고 작가로서 전방위 활동을 했던 박혜준 디자이너에게 1980년대 출판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드렸다. 박영신은 '웅진출판'에서의 경험담을 토대로 어린이 잡지 ≪어린이 마을≫의 부록이었던 『어머니책』에 대한 증언을 들려주었다. 디자이너 박혜준도 웅진 출판에서의 경험담을 기초로 ≪어린이 마을≫ 디자인과 그 책을 통해 과감하게 시도해 나간 출판 일러스트레이션 디렉팅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해 줬다. 그것은 1980년대 한국 여성 디자이너의 한 단면을 발견할 수 있었던 빛나는 시간이었다. 디자이너의 구술 기록은 그동안 발언권을 얻지 못했거나 연구대상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인물을 발굴하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더해질 수 있다.

조의환

1980년대 한글을 다루는 디자인 분야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우리의 시각문화 자체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전환되며 출판물의 시각적 편집 구조가 변화했고, 동시에 가로쓰기에 적합한 서체 개발 요구가 대두되었다. 단행본, 잡지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신문도 가로쓰기로 바뀌었다. 북 디자인 연구모임은 당시 조선일보에서 신문 가로쓰기 리디자인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조의환 디자이너를 모셨다. 조의환 디자이너는 1980년대 잡지 디자이너와 아트디렉터로도 활동하며 지면 광고, 잡지, 신문 제작 프로세스를 경험했다. 납 활자를 사용해 대지 작업하던 방식을 디지털로 바꿔야 하는 프로젝트를 책임지며 보아 온 출판업계 CTS 도입과 발전의 연대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남궁균

디자이너로부터 듣는 1980년대 기록과 증언에서 우리는 제작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그래픽디자인은 인쇄와 제본을 둘러싼 제작기술의 영향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출판 디자인의 현장에서 인쇄 기술은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랐고, 그 기록은 언제나처럼 전무하다. 우리는 인쇄 현장에서 탐구 정신으로 골몰하고 계신 문성인쇄 남궁균 대표를 모시고 당시의 인쇄 제작 현장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구본창

80년대는 비단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발전 뿐만 아니라 사진식자의 도입으로 인해 화보 디자인이 크게 진화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사진식자 덕분에 컬러 사진 인쇄가 용이해졌으며, 이는 화보가 잡지 중심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진가와 그래픽 디자이너간의 소통과 협업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진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시기로 기록될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북 디자인 연구모임은 다섯 번째 기록과 증언으로 구본창 사진가를 모셨다. 구본창은 1980년대 독일에서 사진과 사진디자인을 공부했고, 귀국 후에는 일명 '메이킹 포토'라는 사진의 새로운 지평을 선보였다. 또한 전시 포스터와 엽서, 도록 등을 직접 디자인하며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섬세한 감각도 보여주었다. 구본창의 사진에 대한 포용적이고 열린 자세는 다양한 디자이너들과의 협업과 잡지 화보로 이어졌다. 구본창을 통해 한국 북 디자인에서 사진 디자인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유정미

한국에서 디지털 조판이 도입되기 시작한 때는 대략 1990년대 초반으로 기록할 수 있다. 1989년 매킨토시가 한국에 상륙한 후, 한국은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의 광풍에 휩싸이게 된다. 정교한 기하학적 면모를 드러냈던 한국형 모더니즘 디자인은 90년대 초반을 거치며 전혀 다른 양상의 '탈직선'의 미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현대 대전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재직 중인 유정미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 현장에서 잡지디자이너로서 활동하며 이 변화의 충격을 몸소 겪은 인물이다. 북 디자인 연구모임은 1980년대를 표상하는 직선의 그래픽 디자인이 1990년대를 대변하는 탈직선의 그래픽 디자인으로 변모해 가는 그 한가운데를 직시하고자 유정미를 초대했다. 무엇보다 한국 그래픽 디자인에서 몇 안 되는 저술가로서도 활동했던 유정미는 10년 단위로 분절되는

역사관에서 쉽게 누락될 수 있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과도기의 그래픽 디자인 씬을 정교하고도 조리 있는 언어로 묘사했다.

마치며

1980년대 출판 현장에서 활동한 디자이너와 제작자들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북 디자인 연구의 단서를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술과 감각,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북 디자인은 새롭게 그리고 빠르게 갱신되고 있다. 과거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다층적 경험을 간접적으로 획득하는 일이다. 북 디자인 연구모임 회원들은 녹취록을 기반으로 시각자료 정리와 보다 구체적인 글쓰기를 준비하는 중이다. 북 디자인이 끊임없이 현장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재, 비평과 역사적 서술에 한 발짝 다가서려는 우리 연구모임의 시도가 머지않은 미래에 단행본으로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 디자인사 연구는 이제 디자인 가치에 대한 세대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며 미래를 준비하려는 전략이다. 그동안 소수의 연구자들이 디자인사 연구에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계가 이를 외면하며 역사 연구를 소홀히 해왔음은 반성해야할 일이다. 한국 디자인을 중심으로 역사 연구와 서술, 담론 생성과 확장, 비평과 실천이라는 숙제 앞에서 한국디자인사학회의 역할은 선명해진다.